



부처님오신날 꽃으로 금계 정엄한 관불단 앞에서 합장하는 불자들.

### 불교꽃꽂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 룸비니동산에는 꽃비가 내렸다. 아기가 싹달타가 처음으로 내린 일곱 겹마다 피어오른 것도 연꽃이었고, 깨달음 이후 영산화상에서 설법할 당시 가섭 존자에게 말없이 들어 보인 것도 한 송이 꽃이었다. 그 뿐이라. 불보살이 앉은 자리는 언제나 연꽃으로 정엄돼 있고, 탕화 속 보살 역시 찬란 공양할 꽃을 늘상 몸에 지니고 있다.

누군가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로 권세나 명예 따위의 무상함에 꽃을 비유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꽃이 진리의 상징으로 표현됐다. 육법공양의 하나이자 진리를 담은 예술, 불교 꽃꽂이의 의미와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육법공양중 하나인 꽃공양을 올리는 스님들. 만가지 행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꽃을 올리기 때문에 꽃공양을 '만행화'라 표현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꽃공양은 수행의 결실을 맺는 과정

꽃공양의 역사는 곧 꽃꽂이의 역사다. 꽃꽂이 전문가들은 "꽃 공양을 위한 꽃꽂이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이 땅에 뿌리내려 불교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왔다"고 말한다. 삼국시대에 조성된 쌍영총 벽화 등을 비롯해 신홍사 대웅전 기단 돌조각의 공화(供花·통일신라), 해인사 대적광전의 꽃바구니 벽화(고려시대), 흥국사 감로탱에 나타난 꽃꽂이(조선시대) 등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그렇다면 꽃공양과 불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꽃은 만덕을 갖춘 진리에 비유된다. 법구경에는 "연꽃은 바로 비로자나불이시므로 그 불신은 온 세계에 충만하다"고 나타나 있다. 그래서 꽃 공양을 다른 말로 '만행화'라 표현한다. 만 가지 행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꽃을 올리기 때문이다.

꽃공양의 과정이 수행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연 스님(한국꽃꽂이협회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장)은 <관불삼매해경> 십년시방불품에 "향화를 봉헌할 때에 원문(願文)을 발(發)하여 지거나 법회 때에 공양문을 지어 풍영(風映)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꽃공양은 불자들 수행 정진의 결실을 맺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수행을 거쳐 성취한 깨달음이 곧 꽃으로 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삼존 구도는 불법승과 윤회사상 함축한 것

서양식 꽃꽂이는 일정한 골격 없이 몇 가지 형태에 따라 꽃을 모아 꽂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장식용 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동양식 꽃꽂이

## 활짝 핀 꽃은 성불의 기쁨



불교 꽃꽂이는 불·법·승을 의미하는 3골격을 주지(主枝)로 처리한다. 보명 스님 작.

모양·색깔·위치 등 교리에 맞게 쓰는게 기본 쌍영총 벽화, 흥국사 감로탱 등에 꽃공양 흔적 지연·보명·정명 스님 등 단체 구성 활동 활발

는 여백과 선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 불교꽃꽂이는 동양식 꽃꽂이의 묘를 살리는 경우가 많다. 불교꽃꽂이는 구도나 재료 면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발단을 장엄하는 불전공화의 경우 보통 중심의 부처님, 그리고 좌우의 협시보살로 이어지는 삼존양식 구도를 사용한다. 활짝 핀 꽃을 중심에 놓고 양쪽에 봉오리 꽃을 세운다. 보명 스님(한국불교연화회 회장)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만개한 중심 꽃은 법의 기쁨과 성불을 나타내고, 좌우 협시보살로 대표되는 양쪽 꽃봉오리는 청정과 지혜를 뜻한다"며 "사상적으로도 삼보(불·법·승)에 귀의하는 뜻과 윤회사상(과거·현재·미래)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공간에 꽃을 꽂을 때에도 이와 같은 3골격을 주



기와와 소나무 등으로 한국의 정신세계를 표현했다.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노란색'의 정미로 보편적인 진리를, 중앙의 꽃 안시더움은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지연 스님 작.

지(主枝)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삼존뿐 구도는 이후 가장 기본적인 꽃꽂이 양식의 기준이 됐다. 극락조, 연꽃, 목련, 작약 등의 꽃을 주로 사용하고 다 서가지 이상의 색상을 쓰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 비구니스님들 개별 활동으로 명맥 이어와 한국꽃꽂이협회와 한국꽃예술작가협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지연·동화·인애·명주 스님 등은 1988년 한국불교비구니스님꽃꽂이회를 결성해 불교꽃꽂이 강좌와 전시회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꽃꽂이 전시에 재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한국불교꽃예술회'로 개칭, 연간 1회씩 전시회를 열어왔으나 현재 단체활동이 흐지부지된 상태다.

### 인터뷰

불교꽃꽂이 연구 34년 지연 스님

"꽃꽂이 작가의 역량에만 의존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불교꽃꽂이 연구와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34년간 꽃꽂이 길을 걸은 지연 스님(사진)은 불교문화의 하나로 계승된 불교꽃꽂이가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는 선의 예술을 구현한 불교꽃꽂이 연구를 주목하기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스님들의 원력에 의존한 불단장엄용 꽃꽂이에만 갇혀있다는 판단에서다.

### 30여년 무료강좌 꽃 통한 포교 4월 불교꽃꽂이연구 모임 결성

"단청이 화려한 목조건물 법당, 시멘트로 지은 현대식 사찰법당의 꽃꽂이가 일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과 성격에 맞는 꽃의 양식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꽃과 수행이 돌아 아닌 경지를 체득하는 동시에 꽃을 통한 포교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스님은 '꽃'이 살아나는 환경이 아닌, '환경'이 살아나는 꽃을 위한 꽃꽂이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주위를 빛내는 미덕과 상생의 가르침도 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를 위해 4월부터 불교꽃꽂이 연구 모임을 꾸리는 한편, 30여년 간 이어온 꽃꽂이 무료강좌(4월 7일 개강, 기일사) 역시 한층 강화해 이어갈 예정이다. (02)918-0034

##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귀의 삼보 하옵시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늘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고 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였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 안정성과 그늘음 없이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이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미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이 제품입니다.

**사용처** | 부처님전, 신전각, 탕화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성취(자주)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파랑)

**연꽃초** | 범당, 탑돌이, 방생 등 특이 아원의 다양한곳에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현불교예술원** | 불교공품·불상조성·전기촛불·양초제작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회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움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쓸바위에서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 만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음에 자연적으로 3과로 증가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항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국사봉 원국사

강원도 횡성의 국사봉 재상마루 중턱에 위치한 원국사는 지혜의 길, 선행의 길, 믿음의 길로 모든 생명을 다 제도하겠다는 영원한 생명 아미타부처님의 기도도량이다. 원국사는 울창한 나무들이 곳곳에 늘어서 있고, 바위에 서 흘러나오는 웅천수는 공덕을 갖춘 약수로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뭇하고, 깨끗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청수로 영험하여 많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적의 아미타 열불기도 도량입니다.

● 2005년 2월 21일 대구 최명옥 보살의 조상전도 49일 회향기도 청수의 열을 물오를 사진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광명과 환희와 생명으로 충만한 원국사에서 일체업장이 깨끗이 소멸되고 심중 소구 소원 원만성취 하옵소서.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옵나이다.

**마음의 귀의처 국사봉 원국사**  
회주 범용스님 주지 진모스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71번지  
전화 033)343-1767~8

##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 참꽃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 山寺 참꽃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 등 / 오장육부 기능 정상화 / 신경조절, 관절염, 당뇨, 원기회복에 기여

기원전, 천성,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 회복 / 거담, 배변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 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꽃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 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꽃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율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꽃조청**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송이 고이자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054-372-3166 054-372-5721 **금융사**

•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회 (산사 참꽃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